

6·25전쟁 납북자의 납북동기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명호(강릉대학교)
myung@kangnung.ac.kr

6·25전쟁 납북자들의 납북동기가 자진율북인지 납치인지,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미흡한 자료와 관련 연구의 부진으로 납북자들의 납북동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없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납북자 관련의 4개 문서에 등재된 납북자들의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4개 문서에 등재된 납북자 94,717명 가운데 중복된 명단 12,986명을 제외한 81,731명이 납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이용하여 납북자들의 기초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유가족들의 설문자료(성명, 나이, 납치일, 납치장소, 납북자 직업, 납북자의 거주지, 결혼유무, 납치명분, 납북자와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자 주소, 납북자의 자녀사항, 납북자에 대한 호적 정리 관계, 신청자의 직업, 신청자 거주지, 유가족들의 납북자에 대한 희망사항 등)를 이용하여 납북자들의 납북동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납북자들의 기초자료분석은 Access의 쿼리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납북동기분석은 SPSS의 V.12의 crosstabs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납북동기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한 계획된 목적으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납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이 연구의 결과가 6·25전쟁 납북자 연구에 기초적인 분석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 주제어: 6·25전쟁 납북자, 납북자 실태분석, 납북동기 분석

I. 서 론

1946년, 김일성(1946; 66-69)은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¹⁾ 대하여’의 담화문에서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런 목적에 의해 북으로 납치된 6·25전쟁 중의 납북자수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는

1) 원전 제목에 의함.

7,034명으로, 이 가운데 337명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2002; 8)에 의하면, 6·25전쟁 때 납북자수는 대한적십자사 자료의 11배가 넘는 82,959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자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납북자들의 인권문제는 그동안 철저하게 무시되어 왔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정부는 6·25전쟁의 납북자 관련 사항들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하여 6·25전쟁의 납북자 관련 문제들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6·25전쟁 납북자들의 납북동기가 자진윌북인지 납치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미흡했던 자료와 관련 연구의 부진으로 납북자들의 납북동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없었다.

더구나 대다수의 납북자들이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북한으로 납치되어 지금까지 억류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는 이들을 자진 윌북자들로 취급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4개의 6·25전쟁 납북자 명단이 기재된 문서들을 바탕으로, 납북자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납북자들의 인적 구성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유가족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면담을 통하여 작성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납북자들의 납북동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납북자 관련 기초자료분석은 Access의 쿼리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납북동기 분석을 위한 항목별 관계분석은 SPSS V.12의 crosstabs 방법을 사용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6·25전쟁 납북자 연구에 기초적인 분석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II. 6·25전쟁중 납북자 관련 선행연구 및 납북자 명부

1. 6·25전쟁중 납북자 관련 선행연구

6·25전쟁중의 납북자와 관련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매우 미흡한 상태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제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2000; 4)는 납북자들이 조속히 귀환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아울러 납북자에 대한 생사와 주소확인, 서신교환 및 상봉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송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윤여상(2000; 283-313)은 한국전쟁시 북한은 상당수의 민간인을 북한으로 납치하여 갔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현재까지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 납북자의 규모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는 미비하지만, 1951년 12월 19일 미국대사 Muccio가 국무장관에게 보낸 보고문서에 한국의 내무부 통계를 인용하여 서울에서 강제 납북된 민간인은 2,438명, 행방불명자는 1,202명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납북자가족연합회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1951년 12월 기준으로 강제 납북된 민간인 총수는 2만여 명이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간부 출신 탈북자는 한국 관계기관의 자료와 북한자료를 근거로 하여 한국 전쟁 시기 납북자의 전체 규모를 84,532명(남자 78,377명, 여자 6,155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민간인 납북자의 규모는 한국과 북한의 관련자료가 함께 공개되어야 실상과 근접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신율(2001; 14-31)은 한국전쟁 납북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6일 동안 대한적십자사에 접수된 납북자수는 인민군 입대자 및 자진 월북자를 제외한 7,034명이다. 그리고 납북자 중 50%가 공무원, 학자, 법조인 등의 지식계층이었으며, 공무원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신율(2002; 153-175)은 한국전쟁 당시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납북자들의 입북경위의 모호성 등 복잡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이 문제들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납북자 문제의 복잡성과 그에 따른 차이점을 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납북자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월간조선사(2003)는 본인이 작성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1952년 대한민국정부에서 발행한 국립중앙도서관소장 명부를 재편집하여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그동안 미진했던 납북자들의 명부를 정리한 것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윤여상(2004; 217-236)은 6·25전쟁 납북자를 한국전쟁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북한에 강제 납치된 민간인으로 정의하고, 법률적으로 국가의 보호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한 6·25전쟁 납북자는 조사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미신고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94,700여명보다 더욱 많을 것이라고 하였고, 납북자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통일백서(2004; 235-236)에 의하면, 6·25전쟁 기간중 납북자수는 당시 통계연감에 8만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한 실향사민 등록에는 7,034명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북측이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근본적인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산가족교류에 납북자를 포함시켜 생사확인이나 상봉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접근방법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정희혁(2004; 38-43)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전사자와 부상자,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음을 지적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2005; 56-66)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인권정책분야)에서 2003년 12월 19일『납북자 관련 인권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공청회』와 2004년 4월 9일 ‘납북자 가족 인권침해 증언청취를 위한 미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여,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를 증언으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납북자 가족에 관한 실태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본인은(2004; 159-176) 납북자들을 최초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81,716명이 납북되었음을 밝혔다. 납북자들의 직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는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검찰 간부,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냈다. 또한, 납북자 가운데 외국인들이 20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는데, 납북된 외국인들의 국적은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이다. 그리고 납북자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통계자료에 의한 납북자수를 다룬 것으로 정책적인 대안 제시에 그치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납북자들의 동기분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본인이 2004년에 구축한 6·25전쟁 납북자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고 납북자의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납북자들의 납북동기를 분석하고자 한다.

2. 6·25전쟁 납북자 관련 명부

현재까지 발견된 6·25전쟁 납북자 관련 문서는 ① 공보처 통계국에서 작성한『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②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6·25사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 ③ 해공 신의회 선생 유품에서 나온『6·25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④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실향사민 등록자 명단』(7,034명), ⑤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한『피납치자

명부』(17,940명) 등 5개가 있다.

1) 공보처 통계국의『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

이 문서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고서수집가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한다.『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의 표지 하단에『공보처 통계국』으로 표기되어 있어 정부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서 표지 상단에는 ‘檀紀4283년 自6월25일 至 9월 28일 (6·25사변중)’이라고 적혀 있다. 즉,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9·28 서울 수복까지의 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를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대상의 피해 발생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는 발행일이 단기 4823년(1950년) 12월 1일로 서울시내 9개 구청에 의해 조사된 명단이다.

문서에 기록된 납북자수는 4,616명이며, 이 가운데 2,438명이 납치에 의한 것이었고, 그 납치자 가운데 여성이 93명이었다. 그리고 행방불명자는 1,202명, 피살자가 976명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6·25 납북자들이 납치를 당한 것인지, 자진 월북한 것인지 그 구분이 모호하다는 입장만을 주장해 왔지만, 이 문서에는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인사들의 명단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공보처 통계국은 이 문서가 애초에는 유명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피해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조사대상은 만 14세 이상이었고, 의용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제외되어 있었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9).

2) 대한민국 정부 발행의『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의해 2002년 2월 중순 경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된 문서이다. 이 문서는 1952년 10월경 대한민국 정부의 실제 조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82,959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작성경위는 전쟁중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을 비롯하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납치되어 갔으므로, 그 당시 정부가 그것을 국가적 인명피해로 판단하고 전국 일선행정기관에 명령하여 납치여부에 관하여 실제로 확인한 후 명단을 작성하였다고 한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8).

이 문서는 전국의 납북자수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 숫자는 1952년에 발행된 대한민국 통

계연감과 일치한다. 1953년에 발행된『대한민국 통계연감』에는 납북자수가 84,532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것은 1953년에 추가된 납북자수가 반영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서에 기록된 명단은 2002년 6월 본인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화되었고,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일반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3) 신익희 선생의『6·25사변 피납인사 명부』

『6·25사변 피납인사 명부』는 1952년에 결성된 ‘6·25사변 피납치 인사 가족회’가 작성하여 당시 국회의장인 신익희 선생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 문서는 신익희 선생의 유품에서 발견되어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입수되었다. 문서에 기재된 피납치자는 대부분 서울지역 거주자이며, 모두 2,316명이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10).

4) 대한적십자사의『실향사민 등록자 명단』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은 대한적십자사에서 납북자들의 안부를 탐지해주겠다는 목적으로 실시되어 작성된 문서이다. 납북자 가족들에게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향사민 재등록을 받아 7,034명의 명단이 새로 작성되었다(대한적십자사, 1956; 3). 이 때 정부가 ‘납북자’ 대신에 ‘실향사민(Displaced Civilians)’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북한에 안부탐지를 하기 위한 방책이었고 한다(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2002; 10).

5) 내무부 치안국의『피납치자 명부』

『피납치자 명부』는 1954년 내무부 치안국에서 작성된 것으로 17,940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²⁾ 이 자료는 그동안 정부에서 마이크로 필름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것이 2003년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러나 필름 자료가 선명하지 못하여 문자 해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2)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함.

III.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6·25전쟁 납북자 관련자료는 ① 공보처 통계국 작성 『서울특별시 피해자 명부』(2,438명), ② 대한민국 정부 발행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82,959명) ③ 해공 신익희 선생 유품에서 나온 『6·25사변 피랍인사 명부』(2,316명) ④ 1956년 대한적십자사의 『실향사민 등록자 명단』(7,034명) 등 4개 문서에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하였다.

먼저, 4개 문서에 기재된 94,717명의 납북자들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Access를 이용하여 모두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Access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취급하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자료들을 웹사이트에 올려 자료의 검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과정에, 모든 문서들의 내용이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었고, 당시에 사용된 약자로 쓰여진 한문들에 의해 많은 인력 동원과 시간적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40여 명의 대학생들의 3개월 동안의 작업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데이터베이스에 구성된 필드는 한글 성명, 한자 성명, 성별, 당시 나이, 직업, 납치장소, 납치일, 주소 등으로 하였으며, 문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그리고 각 문서에 따라 필드의 구성이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내용을 첨삭하여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통일성을 꾀하였다.

또한, 동일인이 여러 문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어, 납북자들의 기초 자료분석작업 이전에 소트 방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명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삭제하였다. 이렇게 여러 문서에서 동일한 명단이 나타난 것은 유가족들이 여러 기관에 중복하여 납북자로 신고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4개 문서에 등재된 94,717명 가운데 중복된 명단 12,986명을 제외하면, 분석대상은 81,731명이 된다.

그리고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은 쿼리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지역별 납북자 분포, 연령대별 납북자 분포, 직업별 납북자 분포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 지역별 납북자 분포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81,731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가운데 1,524명(1.9%)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표 1>에서 공란은 성별에 대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데이터이다. 따라서 여기에도 일부 여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납북된 여성수는 이 데이터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 시대에 여성의 사회활동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 표를 살펴보면, 납북자 가운데 약 4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총인구수와 비교한 지역별 납북자수

지역	1950년 납북자수				1949년 총인구수			납북된 남성 비율
	남성	여성	공 란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서울시	22,833	498	1,137	24,468	737,371	700,299	1,437,670	0.031%
경기도	9,009	60	62	9,131	1,381,895	1,352,049	2,733,944	0.007%
강원도	10,739	22	65	10,826	587,256	551,179	1,138,435	0.018%
충청북도	8,265	11	1	8,277	583,015	562,949	1,145,964	0.014%
충청남도	9,487	315	0	9,802	1,029,507	997,330	2,026,837	0.009%
경상북도	7,030	102	1	7,133	1,618,840	1,586,400	3,205,240	0.004%
경상남도	1,688	12	0	1,700	1,572,279	1,561,418	3,133,697	0.001%
전라북도	6,493	413	10	6,916	1,034,203	1,014,748	2,048,951	0.006%
전라남도	3,327	62	43	3,432	1,529,136	1,512,355	3,041,491	0.002%
제주도	17	29	0	46	114,736	139,791	254,527	0.000%
합 계	78,888	1,524	1,319	81,731	10,188,238	9,978,518	20,166,756	

1949년 당시의 총인구수와 납북자수를 비교하면, 1949년 우리나라의 총인구수는 20,166,756명으로, 국민의 0.4%가 납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인 점을 감안하여 1949년도 남성의 수와 1950년도에 납북된 남성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서울시가 0.03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4).

3. 연령대별 납북자 분포

납북자들의 연령대별, 지역별 납북자수를 살펴보면, 당시 나이로 10세 이하의 영아 및 어린이가 148명, 10대가 16,061명(19.7%), 20대가 41,570명(50.9%), 30대가 13,966명(17.1%), 40대가 5,434명(6.6%), 50대가 2,672명(3.3%), 60세 이상의 고령자들도 935명으로, 20-30대의 납북자수가 전체 납북자수의 68.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납북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연령대별, 지역별 납북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2> 연령대별, 지역별 납북자수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공란	합계
서울시	남	15	2,736	9,525	5,735	2,660	1345	372	74	362	
	여	1	107	214	71	47	30	7	3	18	
	공란	0	30	268	365	264	124	44	4	38	
	합계	16	2,873	10,007	6,171	2,971	1499	423	81	427	24,468
경기도	남	0	1,510	4,800	1,766	548	246	59	23	57	
	여	0	10	23	14	4	4	1	1	3	
	공란	0	3	8	5	3	1	0	0	28	
	합계	0	1,523	4,831	1,785	555	251	60	24	102	9,131
강원도	남	1	2,443	5,986	1,809	285	131	25	1	67	
	여	0	7	9	0	3	1	0	1	0	
	공란	0	8	25	21	8	3	0	0	0	
	합계	1	2,450	6,020	1,830	296	135	25	2	67	10,826
경상남도	남	0	424	889	202	99	43	6	1	24	
	여	0	3	6	1	1	1	0	0	0	
	공란	0	0	0	0	0	0	0	0	0	
	합계	0	427	895	203	100	44	6	1	24	1,700
경상북도	남	0	1,993	4,198	553	140	45	22	4	75	
	여	1	39	49	5	2	2	1	0	3	
	공란	0	0	1	0	0	0	0	0	0	
	합계	1	2,032	4,248	558	142	47	23	4	78	7,133
전라북도	남	8	1,332	3,289	979	488	234	82	36	54	
	여	8	72	95	82	62	60	22	0	3	
	공란		1		1	4	3	1	0	0	
	합계	16	1,405	3,384	1,062	554	297	105	36	57	6,916
전라남도	남	3	967	1,889	228	81	40	12	3	104	
	여	4	20	19	10	4	2	1	0	2	
	공란	0	10	20	3	2	1	0	0	7	
	합계	7	997	1,928	241	87	43	13	3	113	3,432

(다음쪽에 계속)

		1~10	11~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	공란	합계
충청남도	남	77	2,055	4,883	1,361	647	314	102	12	37	
	여	29	71	95	41	41	27	8	1	1	
	공란	0	0	0	0	0	0	0	0	0	
	합계	106	2,126	4,978	1,402	688	341	110	13	38	9,802
충청북도	남	1	2,182	5,263	712	40	15	4	2	47	
	여	0	9	2	0	0	0	0	0	0	
	공란	0	0	0	0	0	0	0	0	0	
	합계	1	2,191	5,265	712	40	15	4	2	47	8,277
제주도	남	0	10	5	1	1	0	0	0	0	
	여	0	19	9	1	0	0	0	0	0	
	공란	0	0	0	0	0	0	0	0	0	
	합계	0	29	14	2	1	0	0	0	0	46

주) '공란'의 값은 특정한 값이 기재되지 않은 데이터의 수를 나타냄.

1949년 총인구조사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연령별, 성별 인구통계와 비교하였다. 당시의 우리나라 연령별 인구분포는 10세 이하가 29.15%, 10대가 22.50%, 20대가 15.93%, 30대가 11.94%의 순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비슷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대부분이 남성인 점을 감안하여 1949년도 남성의 연령별 수와 1950년도에 납북된 연령별 남성의 비율을 분석해 보면, 21세에서 30세 사이가 0.01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31세에서 40세의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통계메타 데이터베이스).

〈표 3〉 총인구수와 비교한 연령별, 성별 납북자수

성별 나이	6·25전쟁 납북자수				1949년 총인구수			납북된 남성 비율
	남	여	공란	합계	남	여	합계	
1~10	105	43	0	148	2,991,580	2,886,197	5,877,777	0.000%
11~20	15,652	357	52	16,061	2,311,652	2,225,639	4,537,291	0.007%
21~30	40,727	521	322	41,570	1,623,467	1,589,576	3,213,043	0.025%
31~40	13,346	225	395	13,966	1,241,968	1,165,937	2,407,905	0.011%
41~50	4,989	164	281	5,434	881,943	839,539	1,721,482	0.006%
51~60	2,413	127	132	2,672	635,085	663,068	1,298,153	0.004%
61~70	684	40	45	769	485,605	590,121	1,075,726	0.001%
71~	156	6	4	166				
공란	816	41	88	945				
연령미상					16,938	18,441	35,379	
합계	78,888	1,524	1,319	81,731	10,188,238	9,978,518	20,166,756	

주) '공란'의 값은 특정한 값이 기재되지 않은 데이터의 수를 나타냄.

·연령미상은 1949년 통계청 총조사인구총괄표에 따름.

4. 직업별 납북자 분포

납북자들의 직업별 분류를 살펴보면, 국가 기밀을 다루며 행정력이 있는 경찰(1,206명), 공무원(2,004명), 군인(455명) 그리고 교육자인 교수 및 교원(677명), 또한 자본주의를 탐색하기 위한 상업(4,452명) 등의 직업을 가진 납북자들이 많았으며, 항목의 기타에 포함된 직업에는 검찰 간부, 국회의원들의 납북자도 상당수 있었다. 직업별 납북자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직업별 납북자수

	서울시	강원도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도	합계
경찰	463	24	25	30	44	35	314	268	3		1,206
공무원	1,293	102	300	8	28	41	92	115	25		2,004
기술자	2,032	76	239	10	37	7	40	112	27	1	2,581
교수	98	1	8								107
교원	313	15	116	4	47	9	21	34	11		570
군인	221	9	42	17	8	20	50	86	2		455
노동자	2,059	460	777	3	26	30	139	79	62		3,635
농업	849	9,029	5,654	1,435	6,274	1,656	5,097	7,254	7,593	44	44,885
변호사	129	1			1	1	3	3	1		139
상업	3,297	258	297	51	89	37	103	287	33		4,452
어업		202		11	183	4	1	2			403
의사	170	3	21		4		3	7	1		209
학생	2,043	203	345	18	211	41	168	205	162		3,396
회사원	1,600	61	78	4	4	4	10	25	7		1,793
기타 및 무직	9,901	382	1,229	109	177	1,547	875	1,325	350	1	15,896
합계	24,468	10,826	9,131	1,700	7,133	3,432	6,916	9,802	8,277	46	81,731

1950년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과 6·25전쟁 납북자들의 직업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관련된 통계자료들을 조사하였다.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1950년과 가장 근접한 연도에 조사된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49년 농가인구는 1,441만6천명(총인구대비 71.4%) 수준이며, 어가인구는 1948년 기준으로 51만1천명(총인구대비 2.52%), 제조업부문 종사자수는 1955년 기준으로 22만1천명, 의사수는 1953년 기준으로 6,000여명으로 나타났다.(통계청;

11-21) 그리고 군인은 103,855명(육군 94,974명, 해군 7,715명, 공군 1,166명)으로 1949년의 총인구대비 0.51%로 나타났다.(군사편찬연구소, 2004, 네이브 검색)

남북자들의 직업비율과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는 1965년도의 경찰, 공무원, 교원 및 교수 취업자비율을 비교하면, 거의 1000배에 가까운 비율이 남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1950년도의 실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1965년도 비율의 2-3000배의 지식층들이 남북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의사수의 경우는 1953년 기준으로 총인구대비 0.00027%인데 비하면, 남북자수 가운데 0.26%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남북자들의 직업 가운데 농업이 가장 많은 54.92%를 나타내지만, 당시의 농가인구가 총 인구대비 71.4%인 1차 산업구조인 것을 감안한다면, 높은 수치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는 이장들이 많이 남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까닭은 당시 이장들이 농촌에서 조직력과 지식을 갖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통계자료로 유추해 낼 수 있는 것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지식층 및 지도층의 인사들이 주로 남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5> 남북자들의 직업에 따른 비율

직업별	남북자수 (명)	비율	총인구대비 취업자		
			연도	인원수(명)	비율
경찰	1,206	1.48%	1965년	34,572	0.001%
공무원	2,004	2.45%	1965년	63,463	0.002%
기술자	2,581	3.16%			
교수	107	0.13%	1965년	101,141	0.003%
교원	570	0.69%			
군인	455	0.56%	1950년초	103,855	0.51%
노동자	3,635	4.45%			
농업	44,885	54.92%	1949년	1,4416,000*	71.4%
변호사	139	0.17%			
상업	4,452	5.45%			
어업	403	0.49%	1948년	511,000*	2.52%
의사	209	0.26%	1953년	6,000*	0.00027%
학생	3,396	4.12%			
회사원	1,793	2.19%			
기타 및 무직	15,896	19.45%			
합계	65,835	100.00%			

- 주) ·기준이 되는 연도가 다른 것은 통계자료의 미비로 조사가 가능했던 최초의 데이터를 적용한 것임.
·1953년의 총인구대비 의사비율은 1953년도의 총인구조사 자료의 미비로, 1955년의 총인구수 21,526,000명을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메타DB)
* : 통계청(2006),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pp.11-21.

IV. 납북동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납북자들의 납북동기를 분석하기 위하여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에 등록된 400여명의 회원들이 작성한 보고서(6·25전쟁 납북자 생사확인의뢰서) 가운데 임의추출한 114명의 자료와 면담을 통하여 설문자료를 작성하였다.

주요 항목으로는 성명, 나이, 납치일, 납치장소, 납북자 직업, 납북자의 거주지, 결혼유무, 납치명분, 납북자와 신청자와의 관계, 신청자 주소, 납북자의 자녀사항, 납북자에 대한 호적 정리 관계, 신청자의 직업, 신청자 거주지, 유가족들의 납북자에 대한 희망사항 등이다.

그리고 연구방법으로 기초자료분석은 SPSS V.12의 빈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납북동기 분석을 위한 항목별 관계분석은 SPSS V.12의 crosstabs 방법을 사용하였다.

2. 표본의 특성

납북자들의 표본분포를 살펴보면, 성별에서는 남성(97.4%)이 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2006년 현재 나이로 계산하여 76-80세(21.1%)가 가장 많았으며, 1950년 납북당시 21-25세의 연령임을 알 수 있다. 현재, 81-85세까지의 납북자들이 북한에 생존해 있다고 가정할 경우, 표본 가운데 60명으로 52.6%의 생존율을 유추할 수 있다.

표본의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과 비교하면, 표본 성별의 비율은 남성이 97.4%, 여성이 2.6%로, 모집단의 남성의 비율이 98.1%, 여성이 1.9%로 비슷하다. 그리고 연령의 비율은 10대가 19명으로 16.7%, 20대가 41명으로 36%, 30대가 29명으로 25.4%, 40대가 23명으로 20.2%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집단과 연령대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가장 납북이 많은 20-30대의 비율이 71.4%(모집단은 68.0%)로 비슷하다고 하겠다.

납북자들 가운데 73.7%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북자의 72.8%가 대한민국에 1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납북자들의 표본자료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표본으로 사용된 납북자들의 인적 특성

항 목	분류사항	인원	비율(%)
성 별	남 성	111	97.4
	여 성	3	2.6
연 령	65~70	3	2.6
	71~75	16	14.0
	76~80	24	21.1
	81~85	17	14.9
	86~90	12	10.5
	91~95	17	14.9
	96~100	12	10.5
	101~105	11	9.6
	106~110	1	0.1
	111~115	1	0.1
결혼유무	결 혼	84	73.7
	미 혼	30	26.3
자녀사항	1명	19	16.7
	2명	13	11.4
	3명	17	14.9
	4명	18	15.8
	5명 이상	18	15.8
	공란	31	25.4

납북자들의 납북당시의 거주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서울(54.4%)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25.4%), 경상북도(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납북자들의 납북당시 거주지가 전국 납북자 분포와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2000년에 설립된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들의 거주지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7〉 납북자들의 납북당시 거주지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서울	62	54.4	54.4	54.4
경기도	29	25.4	25.4	79.8
경상북도	8	7.0	7.0	86.8
강원도	5	4.4	4.4	91.2
충청남도	3	2.6	2.6	93.9
충청북도	2	1.8	1.8	95.6
전라북도	2	1.8	1.8	97.4
공란	1	.9	.9	98.2
경상남도	1	.9	.9	99.1
전라남도	1	.9	.9	100.0
Total	114	100.0	100.0	

그리고 납북자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공무원(9.6%), 학생(8.8%), 상업(7.0%), 경찰 및 군인(7%) 그리고 ‘국회의원 및 정치인’과 ‘교수 및 교원’도 각각 3.5%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한 납북자들도 21.9%로 나타났다.

〈표 8〉 납북자들의 직업 분포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농업	25	21.9	21.9	21.9
기타	20	17.5	17.5	39.5
공무원	11	9.6	9.6	49.1
학생	10	8.8	8.8	57.9
상업	8	7.0	7.0	64.9
경찰 및 군인	7	6.1	6.1	71.1
제조업	5	4.4	4.4	75.4
국회의원 및 정치인	4	3.5	3.5	78.9
교수 및 교원	4	3.5	3.5	82.5
공란	3	2.6	2.6	85.1
공업	3	2.6	2.6	87.7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3	2.6	2.6	90.4
종교인	2	1.8	1.8	92.1
언론인	2	1.8	1.8	93.9
의사	2	1.8	1.8	95.6
기술자	2	1.8	1.8	97.4
어업	1	.9	.9	98.2
회사원	1	.9	.9	99.1
노동자	1	.9	.9	100.0
Total	114	100.0	100.0	

표본의 직업별 분포가 모집단의 직업별 분포를 비교하면, 농업, 기타의 비율이 적은 반면, 교수 및 교원, 법조인, 의사, 학생, 경찰 및 군인 등 나머지 직업들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으로 추출된 납북자들이 6·25전쟁 당시 사회적 활동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3. 납북자들의 납치관련 사항

1) 납치명분

납북자들의 납치명분을 살펴보면,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한 강제 납북’이 50.9%로 가장 많았으며, ‘납치이유를 모르고 납북된 경우’도 27.2%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밀고에 의한 납북’도 10.5%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계획된 목적에 의하여 납북되었음을 나타내는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 ‘납치이유를 모름’, ‘밀고에 의한 납북’, ‘이유없이 집단소집에 의하여 납북’ 등의 항목이 모두 92.1%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납북자들의 납치명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납북	58	50.9	50.9	50.9
	납치이유 모름	31	27.2	27.2	78.1
	밀고에 의한 납북	12	10.5	10.5	88.6
	인민군에 비협조에 의 한 반동분자로 납북	5	4.4	4.4	93.0
	이유없이 집단소집에 의하여 납북	4	3.5	3.5	96.5
	의용군 소집	3	2.6	2.6	99.1
	남한 정치활동 관여	1	.9	.9	100.0
	Total	114	100.0	100.0	

2) 납치일

납북자들의 납치일을 살펴보면, ‘1950년 7월’부터 ‘1950년 9월’ 사이에 납북자들의 87.7%가 납북되었으며, 3개월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납북자들의 납치일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공란	5	4.4	4.4	4.4
	1950년 6월	4	3.5	3.5	7.9
	1950년 7월	40	35.1	35.1	43.0
	1950년 8월	37	32.5	32.5	75.4
	1950년 9월	23	20.2	20.2	95.6
	1950년 10월 이후	5	4.4	4.4	100.0
	Total	114	100.0	100.0	

즉,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다음 달부터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계획적으로 전국적인 납치 작전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납치장소

납북자들의 납치장소를 살펴보면, 납북자들의 ‘자택’(47.4%)과 ‘거주지 인근지역’(39.5%)에서 납치된 경우가 전체 납북자들의 86.9%나 된다. 북한군들이 납북자들의 인적 사항을 사전에 알고, 직접 찾아와서 납치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북한의 사전에 계획된 명령에 의하여 강제 납북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 11〉 납북자들의 납치장소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자택	54	47.4	47.4	47.4
	거주지 인근지역	45	39.5	39.5	86.8
	거주지외 지역	14	12.3	12.3	99.1
	공란	1	.9	.9	100.0
	Total	114	100.0	100.0	

4) 신청자 인적사항

신청자와 납북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녀’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형제·자매’(23.7%), ‘부부’(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자료에서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납북자수는 85명인 74.6%로, 전국 연령대별 납북자 분포에서 결혼이 가능한 20대 이상의 납북자수가 65,522명(80.2%)으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 신청자와 납북자와의 관계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자녀	68	59.6	59.6	59.6
	형제·자매	27	23.7	23.7	83.3
	부부	8	7.0	7.0	90.4
	기타	6	5.3	5.3	95.6
	부모	5	4.4	4.4	100.0
	Total	114	100.0	100.0	

5) 유가족들의 희망사항

유가족들의 희망사항은 납북자들이 현재 대부분 고령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선 ‘생사확인’이 77%이며, ‘상봉’(23%), ‘사망시 유골송환’(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유가족들의 희망사항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생사확인	77	67.5	67.5	67.5
	상봉	23	20.2	20.2	87.7
	사망시 유골송환	14	12.3	12.3	100.0
	Total	114	100.0	100.0	

6) 호적 정리 사항

유가족들이 납북자들이 언제라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아직 호적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35%로 나타났다.

〈표 14〉 납북자의 호적 정리 사항

		Frequency	percent	Valid Percent	Cumulative Percent
Valid	사망신고	43	37.7	37.7	37.7
	정리되지 않음	35	30.7	30.7	68.4
	실증선고	22	19.3	19.3	87.7
	공란	14	12.3	12.3	100.0
	Total	114	100.0	100.0	

3. 납북동기 분석

1946년, 김일성(1946; 66-69)의 ‘남조선에서 인테리를 데려올데 대하여’의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난관의 하나는 대학교원, 학자를 비롯한 인테리가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인테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운수시설을 복구정비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지장을 받고 있으며, 교육과 과학,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도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오는 것은 그들을 미제와 그 주구들의 탄압으로부터 구원하고 민주건국의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새생활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그들이 자기의 희망에 따라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 문화예술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납치는 이러한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항목으로는 납치명분과 납치장소의 관계분석, 직업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납치일과 거주지역의 관계분석, 납치일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설문자료는 항목별 관계분석을 위하여 SPSS V.12의 crosstabs 방법을 사용하였다.

1) 납치명분과 납치장소의 관계분석

납북자들의 납치장소가 ‘자택’ 및 ‘거주지 인근지역’인 경우의 납북자들의 납치명분을 살펴보면,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납북’이 55명(94.8%), ‘납치이유모름’이 22명(71%), ‘밀고에 의한 납북’이 11명(91.7%)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계획된 목적에 따라 납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표 15〉 납치명분과 납치장소의 관계분석

	납치장소				Total
	공란	자택	거주지 인근지역	거주지 외 지역	
납치명분	밀고에 의한 납북 인민군에 비협조에 의한 반동분자로 납북 남한 정치활동 관여 이유없이 집단소집에 의하여 납북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납북 납치이유 모름 의용군 소집	1 4 1 33 7 2	7 4 1 3 22 15 1	4 1 3 3 9	1 5 1 4 58 31 3
Total		1	54	45	114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46.781 ^a	18	.000
Likelihood Ratio	35.406	18	.008
N of Valid Cases	114		

a. 22 cells(78.6%)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01.

χ^2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p < 0.05$) 범위 내의 수치이므로, 납치명분과 납치장소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군들이 사전에 납치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납치장소가 ‘자택’이거나 ‘거주지 인근지역’일 경우, 납치명분으로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납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 납북자 직업과 납치일의 관계분석

납북자 직업과 납치일에 대한 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950년 7월’에 40명(35%), ‘8월’에 37명(32.5%), ‘9월’에 23명(20.2%)으로 나타난다. 6·25전쟁이 나자마자 북한군의 납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찰 및 군인, 학생, 국회의원 및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등이 이 기간동안 집중적으로 납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납북자 직업과 납치일의 관계분석

직업	공란	납치일					Total
		1950년 6월	1950년 7월	1950년 8월	1950년 9월	1950년 10월이후	
공란				1	1	1	3
경찰 및 군인	1	1	4	1			7
상업	1		3	3		1	8
어업				1			1
학생			3	3	4		10
종교인				2			2
국회의원 및 정치인			1	2	1		4
언론인				2			2
제조업	1		3		1		5
공업			1	2			3
기타	1		7	6	4	2	20
공무원		1	3	6	1		11
의사	1		1				2
교수 및 교원			1		3		4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2	1			3
기술자		1		1			2
회사원					1		1
노동자		1					1
농업			11	6	7	1	25
Total	5	4	40	37	23	5	114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117.652 ^a	90	.027
Likelihood Ratio	88.581	90	.523
N of Valid Cases	114		

a. 109 cells(95.6%)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04.

χ^2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p < 0.05$) 범위 내의 수치이므로, 납치일과 직업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의 유형에 따라 이미 확정된 납북자들을 계획된 시기에 납북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3) 납치일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납치일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납북자들은 대부분 북한군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납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된 납북자’와 ‘납치 이유를 모르는 납북자’들이 1950년 7월, 8월, 9월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1950년 10월 이후부터는 납북자가 현저하게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1950년 7월에 납북자수가 가장 많았던 사실은 계획된 납치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7> 납치일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납치명분							Total
	밀고에 의한 납북	인민군에 비협조에 의한 반동분자 로 납북	남한 정치활동 관여	이유없이 집단소집 에 의하여 납북	인민군 및 내무서원 에 의하여 강제 납북	납치이유 모름	의용군 소집	
납치일 공란								
1950년 6월	1				1	4	1	5
1950년 7월	5	1	1	2	18	13		40
1950년 8월	4	3			20	7	2	37
1950년 9월	1	1			16	5		23
1950년 10월이후	1				1	3		5
Total	12	5	1	4	58	31	3	114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34.645 ^a	30	.256
Likelihood Ratio	35.098	30	.239
N of Valid Cases	114		

a. 36 cells(85.7%)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04.

χ^2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p < 0.05$) 범위 밖의 수치이므로, 납치일과 납치명분 사이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군이 계획된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납북자들을 납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직업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납북자들의 직업과 납치명분의 관계를 분석하면, '밀고에 의한 납북'(10.5%), '이유없이 집단소집에 의하여 납북'(3.5%),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한 강제납북'(50.9%), '납치이유 모름'(27.2%) 등으로, 이것은 인데리라고 할 수 있는 종교인, 국회의원 및 정치인, 공무원, 의사, 법조인, 교수 및 교원 등이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의 사전 납치 계획에 이루어진 납북자들이 전체 납북자의 92.1%를 차지하였다.

〈표 18〉 직업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납치사유							Total
	밀고에 의한 납북	인민군에 비혈족에 의한 반동분자 로 납북	남한 정치활동 관여	이유없이 집단소집 에 의하여 납북	인민군 및 내무서원 에 의하여 강제 납북	납치이유 모름	의용군 소집	
직업								
공란					1	2		3
경찰 및 군인	2				2	3		7
상업	1				4	2	1	8
어업						1		1
학생					7	3		10
종교인					2			2
국회의원 및 정치인	1	1			2			4
언론인	2				3	2		5
제조업					1	2		3
공업					1	2		3
기타	2		1	1	10	6		20
공무원	2	1			6	2		11
의사					1	1		2
교수 및 교원					4			4
법조인(판검사, 변호사)					2	1		3
기술자			1			1		2
회사원					1			1
노동자					1			1
농업	2	2		2	10	7	2	25
Total	12	5	1	4	58	31	3	114

Chi-Square Tests

	Value	df	Asymp. Sig. (2-sided)
Pearson Chi-Square	84.082 ^a	108	.957
Likelihood Ratio	71.969	108	.957
N of Valid Cases	114		

a. 127 cells(95.5%)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01.

χ^2 결과를 살펴보면, 유의수준($p < 0.05$) 범위 밖의 수치이므로, 직업과 납치명분 사이에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납북대상을 납치하기 위한 방법(사유)은 직업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즉, 사전에 납북자들의 개인별 인적사항을 점검하고, 납치계획에 따라 납북자들이 ‘인민군 및 내무서원에 의하여 강제 납북’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김일성은 1946년 담화에서 “부족한 인테리문제를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라고 발표하였다. 그 목적대로 1950년 6·25 낭침과 동시에 7월, 8월, 9월의 3개월에 걸쳐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집중적으로 납치하였다.

6·25전쟁 납북자들의 납북동기가 자진월북인지 납치인지에 대하여, 그동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미흡했던 자료와 관련 연구의 부진으로 납북자들의 납북동기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견된 6·25전쟁 납북자 관련 4개의 문서를 바탕으로 수록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납북자의 인적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납북동기에 대하여 유가족들의 보고서와 설문을 토대로 설문자료를 작성하여 납북동기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납북자 관련 기초자료분석은 Access의 쿼리분석 방법과 SPSS V.12의 기초 통계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납북동기 분석을 위한 항목별 관계분석은 SPSS V.12의 crosstabs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납북자 관련 기초 자료분석을 위하여 기존의 4개 문서에 기재된 납북자들을 데이

터베이스화하였으며, 4개 문서에 기재된 94,717명 가운데 중복된 명단 12,986명을 제외한 나머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모두 81,731명이 납북되었으며, 이 가운데 1,524명의 여성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납북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여러 직업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는 경찰, 공무원, 군인, 변호사, 검찰 간부, 국회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납북자들의 납북동기분석은 납치명분과 납치장소의 관계분석, 납북자 직업과 납치일의 관계분석, 납치일과 거주지역의 관계분석, 납치일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직업과 납치명분의 관계분석 등을 통하여, 북한이 계획된 목적에 의하여 납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대다수의 유가족들이 원하는 생사확인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6·25전쟁이후 50여 년이 지났으므로 납북자들의 생존 가능성 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①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확인, ② 납북자들에 대한 인권회복, ③ 인도주의 차원의 즉각적인 송환 촉구, ④ 북한의 인식전환을 위한 단계적인 접근, ⑤ 통일을 위한 과거 역사적인 단면의 해결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5),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인권정책분야), 제1집, pp.56-66.
- 김명호,(2004), “6·25전쟁 납북자 실태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과학연구, 한국사회과학회, 제4권 제1호, pp.159-176.
- 김용범,(2002), “6·25전쟁 납북인사 생사확인의 현실적 해결방안”, Keys, 6월.
- 김일성,(1946),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데 대하여’, 「김일성전집 4」, 1946년 7월 31일.
-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학술분과위원회,(1999), “남북통일에 대비한 이산가족의 법적 문제”, 서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 네이브검색,(2004), 6·25 당시의 한국군의 군사력, 군사편찬연구소.
- 대한민국정부,(1952),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 각 도별.
- 대한적십자사,(1956), 『실향사민등록자명단』, 서울.
- ,,(1976), 『이산가족 백서 I』, 서울.

- 동아일보,(2002), 6·25 피랍자 8만명 데이터베이스로 부활, 8월 21일.
- 신율,(2000), 납북자 문제의 해결 방안 연구, 국군포로 및 송환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한나라당 국군포로 및 납북자 대책 특별위원회.
- _____,(2001), “한국 전쟁 당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뜻(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통권 제1호, pp.14-31.
- _____,(2002), “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연구”, 사회과학논집, 제18집, pp.153-175.
- 윤여상,(2000), “납북자 현황과 북한내 생활실태에 관한 고찰”, 통일을 준비하는 모임, 제1회 통일포럼 발표논문.
- _____,(2002), “납북자 실태와 해결방안”,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37호, pp.283-313.
- _____,(2004), “6·25전쟁 납북자 문제의 성격과 해결 방안”,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pp.217-236.
- 정희혁(2004), “6·25전쟁이 한민족에 남긴 상처와 유산 : 전사상자·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그대로 남아”, 자유공론, 제39권 6호 통권447호, pp.38-43.
- 조선일보,(2002), “뭐 拉北者 없다고?”. 11월 4일.
- 조옹규,(2000), 정부는 국군 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국회보.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2002), “6·25납북자 자료발굴”, 뜻, 통권2호.
- 월간조선사,(2003), 6·25 납북자 82959명 : 6·25사변 피랍치자 명부, 서울, 월간조선.
- 통계청,(1949), 1949년 총조사인구 총괄, 통계메타DB.
- 통계청,(2006), 8.15광복 이후 경제·사회 변화상, 보도자료.
- 통일백서,(2004), 통일부.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0),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사항, 통일부/국회 사무처, p.4.
- 한국사회문화연구원,(1997),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공개토론회”, 19차 공개토론회

김명호: 한양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학위(논문: 종합병원의 적정간호인력 배정에 관한 연구)와 성균관 대학에서 공학박사학위(논문: 항공기 승무원 일정계획에 관한 연구)를 취득하고, 현재 강릉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경영정보시스템(MIS), 생산관리, 전자상거래 등이며, 저서로는 「경영통계학의 이해」, 「계량의사결정론」, 「전자상거래의 이해」, 「기업사례경영학」이 있고, 논문으로는 “ARS를 이용한 양방향 온라인 예약관리시스템 개발”, “전수산물 판매를 위한 쇼핑몰 구축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등 다수 논문이 있다 (myung@kangnung.ac.kr).